

The Economy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8. 13

7월 미국 CPI 예상치 부합, 8월 유가 영향 확인 필요

해외채권/크레딧 | 박지빈 | jibin@ls-sec.co.kr

예상치 부합한 소비자물가상승률

7월 미국 CPI는 헤드라인 0.1%MoM, 3.4%YoY 상승했고, 근원 물가는 0.2%MoM, 2.5%YoY 상승해 시장 예상과 부합했다. 미·이란 전쟁으로 CPI가 급등한 이후, 최근 2개월 간 물가상승률은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6월에 이어 에너지(-1.5%MoM) 및 휘발유(-2.9%) 가격이 하락하면서 헤드라인 상승을 제약했다. 근원 CPI의 3개월 및 6개월 연율화 수치도 각각 1.4%, 2.4%로 낮아져 최근의 기초적인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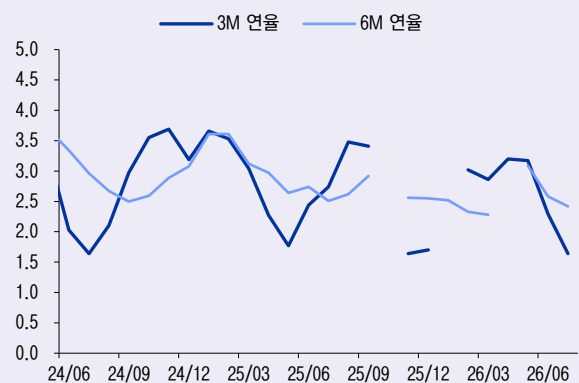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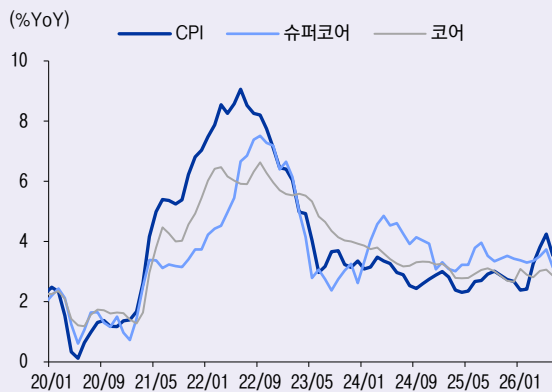
주거비는 낮은 수준을 이어갔지만..

주거비는 0.14%MoM 상승하며 여전히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했다. 다만 이는 월드컵 기저효과로 인해 호텔 등 외부숙박(-2.76%)이 낙폭을 확대한 영향으로, 기초적인 주거비 흐름을 나타내는 주거 임대료와 자가주거비(OER)는 0.3%MoM 상승하며 전월(0.1%, 0.2%)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근원 상품 물가상승률은 0.2%MoM 상승하며 2개월 연속 하락 이후 반등 전환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정보기술 상품(-0.9%→1.4%)과 컴퓨터·주변기기(-0.7%→3.5%)가 큰 폭으로 반등하며 근원 상품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레저(+0.6%), 자동차 부품(+0.6%) 등 일부 수입 의존 품목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주요 가전(-1.9%)과 의료 상품(-0.6%)의 상승률은 하락해 관세로 인한 광범위한 영향을 논하기는 어렵다. 슈퍼 코어는 0.2%MoM, 2.8%YoY 상승하며 YoY 기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8월 CPI에서 유가 상승 영향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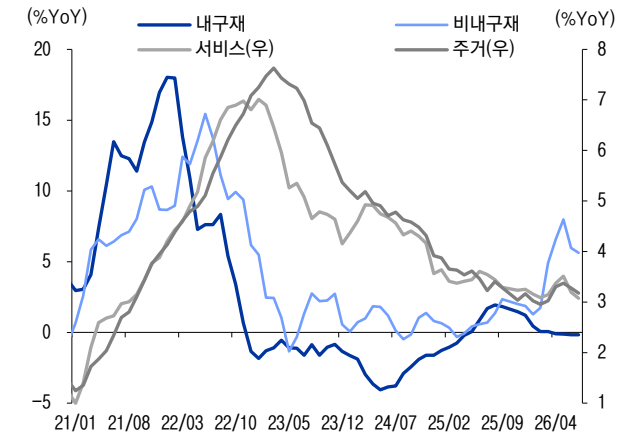
고용 증가세 둔화 및 임금 압력 약화에 이어 발표된 예상과 부합한 CPI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성을 낮추며 9월 금리 동결 기대를 확대시켰다. CME Fed watch 상, 9월 동결 확률은 51.6%에서 59.9%로 상승했으며, 발표 직후 미국채 금리는 낙폭을 확대했다. 다만 7월 중순 유가 상승의 영향이 물가에 미반영됐을 가능성과 8월에 미칠 지연 효과, 그리고 재차 높아진 유가 레벨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8월 물가보고서에서 이를 반영하며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1 CPI 및 기여도, 근원물가 연율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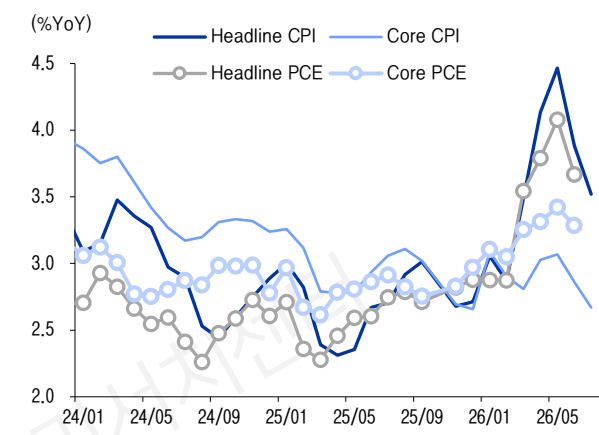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항목별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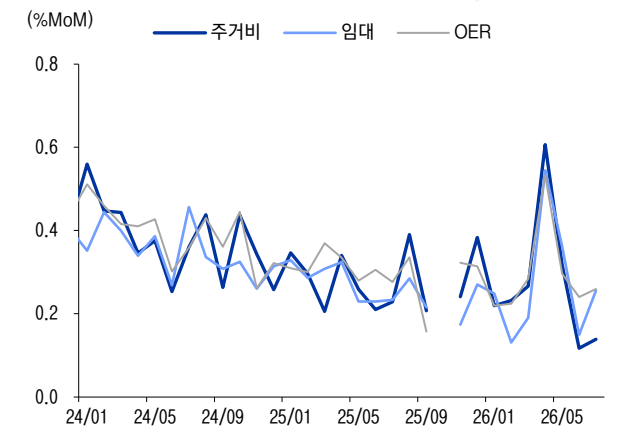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CPI와 PC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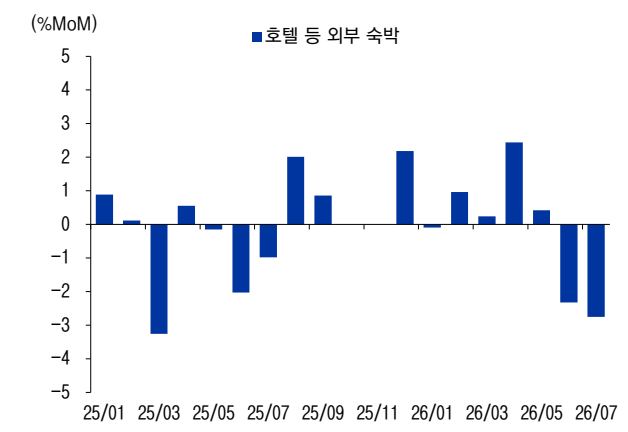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미국 주거 관련 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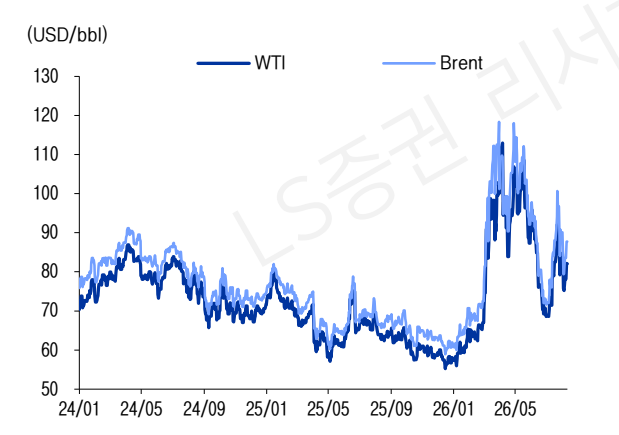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외부 숙박 물가상승률 낙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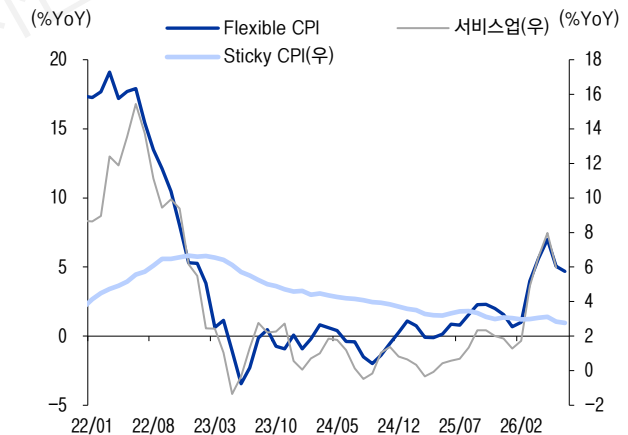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Flexible-Sticky CPI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지빈).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